

## 남북, 65년 만에 서로의 군사 시설 방문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각각 11개가 제대로 파괴·철수됐는지 확인하는 검증작업을 실시했다. 남북 검증 인원들은 이날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GP를 직접 방문했는데,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 남측 현장검증반이 지난 12일 북측 검증반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측 감시초소(GP)의 파괴된 잔해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남측 현장검증반 인원들은 이날 오전 9시쯤 동·서·중부전선 DMZ내 11개 지역에서 각각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GP에 도착해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GP마다 반장인 현역 대령을 비롯해 7명이 투입됐다.

이날 강원 철원 중부전선에서는 남측 검증반장인 윤명식 육군 대령과 북측 안 내책임자 리종수 육군 상좌(중령과 대령 사이)가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며 통성명한 후 GP 검증을 위해 새로 개척한 폭 2~3m 오솔길을 따라 북측 GP로 향했다. 남북 군인이 한데 섞여 이동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들은 가파른 오솔길과 계단 등을 따라 고지 정상에 오른 뒤 검증을 시작했다. 북측은 GP 파괴 전후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남측에 보여주기도 했다. 남측은 북측 GP의 화기·장비·병력의 철수, 감

시소·총안구 등 지상시설물의 철거 여부 등을 검증했다. 특히 지하강도 등 지하시설물의 파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원격 카메라 등도 사용했다. 북측이 폭파 방식으로 GP를 파괴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본 것이다.

남측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되 병력·장비를 모두 철수키로 합의한 북측 GP에서는 군사적 전용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했다. 남측 검증이 끝난 뒤 북측은 오후 2시부터 같은 방식으로 남측 GP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 분위기는 검증 내년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현장검증 결과를 평가·분석한 뒤,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이달 말까지 보완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로서 GP 파괴·철수는 '9·19 군사합의' 중 합의가 완전히 이행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한해 11조 원 이상

2016년 기준 비만에 따른 한국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 해 11조 4,679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해 GDP(국내총생산)의 0.7% 규모에 이르는 수준이다.

1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면 50대가 26.8%로 손실규모가 가장 높았으며 ●60대(21.2%) ●40대(18.2%) ●70대(15.9%) ●30대(7.9%) ●80대 이상(7.3%) ●20대 이하(2.6%) 순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 관련 질병(45개군)에 대한 과거력이 없는 1,009만 1,251명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건강보험 검진·자격·진료내역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연계한 코호트를 바탕으로 연구했다. 공단은 병·의원 및 약국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비롯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간병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직접의료비와 조기사망 및 생산성 손실·저하로 인한 간접비를 합한 총 비용으로 추계했다.

사회경제적 비용 중 의료비에 의한 손실규모가 51.3%(5조 8,858억 원)으로 가장 크고 ●생산성저하

액 20.5%(2조 3,518억 원) ●생산성 손실액 13.1%(1조 4,976억 원) ●조기사망액 10.0%(1조 1,489억 원) ●간병비 4.3%(4,898억 원) ●교통비 0.8%(940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생산성 손실비용은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직장에 결근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액을 말하며, 생산성 저하비용은 근로과정에서 비만에 의해 노동력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뜻한다.

남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56.6%(6조 9,055억 원)로 여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43.4%(4조 9,774억 원)보다 1.3배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비만 관련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중 당뇨병에 의한 비용이 22.6%(2조 624억 원)로 손실규모가 가장 컸으며 ●고혈압 21.6%(1조 9,698억 원) ●허혈성심장질환 8.7%(7,925억 원) ●관절증 7.8%(7,092억 원)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이를 위해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비만예방관리에 적극 동참하여 함께 건강 한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